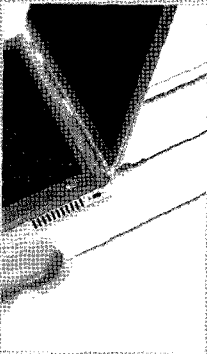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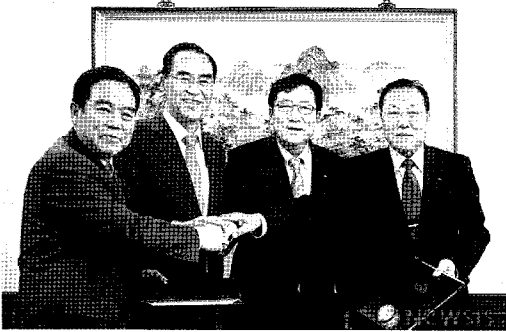
☛ 조합 · 업계소식 [www.kcca.or.kr](http://www.kcca.or.kr)



- 골판지포장업계, 제지·지합과 상생협력 조인
- 제지업계에 골판지원지 단순화 제안
- 라이너지 추가 인상에 대한 골판지포장조합 입장
- 과일 농사 면적 기준 34% 피해
- 일본의 '日刊板紙 단보루 신문', 한국의 (주)제미스코 골판지 원단 자동정렬 장치에 대하여 1면 머릿기사로 상세하게 소개
- 화성포장, 권용건 대표이사 취임

## 골판지포장업계, 제지 · 지합과 상생협력 조인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이사장오진수)은 지난 3월 23일 중소기업 중앙회 김기문화장 주관아래 제지



업계와 지합업계와의 상생협력 조인식을 갖고, 상호공존을 위한 협력을 다짐하고, 향후 지합업계가 원단가격인상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상호 정보교류를 원활히 하고, 협약일로부터 10일 내 상설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 상생에 기반을 둔 상호소통과 고통을 분담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10일내 중앙회와 각 조합 전무이사가 공동간사를 맡아 조합별 2~3개사를 참여시킨 협의체 구성을 완료하기로 하였다.

이날 간담회 겸 협약식에는 골판지포장업계에서는 오진수 이사장, 김진무 전무이사 이외 제일산업(주) 손명섭 사장과 신안포장산업(주) 김일영 사장이 참석하였고, 지합업계에서는 박정일 이사장 이외 대원포장 김순재 사장, 서울지공 구본영 사장, 제지업계는 권혁홍 제지조합 이사장이 참석하였다.

이날 협력조인식 이전에 마련된 간담회에서는 우리업계의 문제를 중앙회장까지 연결시키는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라는 점과 지합업계 측에서 주장하는 원단가격 30%이상 인상은 무리한 요구라는 점에 공감하였다. 아울러 골판지포장조합은 지합조합의 설명자료 제시 요청을 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 9월 직전 가격인상기를 기준으로 이번 골판지원단 가격 인상률은 21.6%라고 설명하고, 그 이상 인상요구는 자제하는 것이 상호 신뢰 구축과 협력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조합원사에 주지시키도록 하겠다는 점을 약속하였다.

## 제지업계에 골판지원지 단순화 제안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은 지난 4월 7일 저급라이너 원지로 사용되고 있는 B원지 사용량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어서 제지업계에 K원지로 대체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골판지포장조합에 따르면 최근 원료자원의 부족으로 촉발된 골판지원지가격 인상과 공급량 부족문제는 원료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집약화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히고, 이는 B원지의 K원지 대체를 통해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K원지로 충분히 대체가 되는 B원지를 없애기만 하여도 제지업체의 입장에서는 B원지로 투입되는 부족한 원료자원을 S, K원지 생산으로 집약화, 생산성 향상을 꾀할 수 있을 것이며, 골판지포장업계는 재고 비용의

절감과 창고활용도 향상 및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 기반 확보에 상당한 기여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골판지포장조합은 이를 위해 지난 3월경 주요 제지업체 최고경영자에게 이러한 조합입장을 설명한 바 있으며, 제지조합을 통해 제지업계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가능하다면 6월 1부터는 K원지의 대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 라이너지 추가 인상에 대한 골판지포장조합 입장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이사장 오진수)에서는 골판지원지 라이너지 가격 추가인상 움직임에 대하여 지난 4월 19일 조합의 공식입장을 라이너지 제조회사에 통지하였다.

조합에서 통지한 내용에 따르면 그동안 골판지포장업계는 제지, 지합 등 3개 연관업계의 상생협약을 2차례에 걸쳐 체결하면서 많은 양보와 협력을 실천하고 요구하여 왔다. 지난 3월 대폭적인 원자재 가격인상의 불가피성을 감안하여 지합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인상을 양해한 바 있었지만, 금번 5월부터 KLB, 백K의 추가인상 가격통지는 감당하기 어려운 최악의 경영여건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물론 UKP의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을 이해할 수 있지만 최근 들어 원화 강제 국면이 지속되고 AOCC, KOCC가격 인하추세 움직임 등을 감안하며 상호 고통 분담한다는 상생의 정신을 고려하여 이번 추가 인상의 건은 5월 중순까지의 국내외 시황을 주시한 이후 인상 여부가 결정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관련 제지업체에 협조를 당부하였다.

## 과일 농사 면적 기준 34% 피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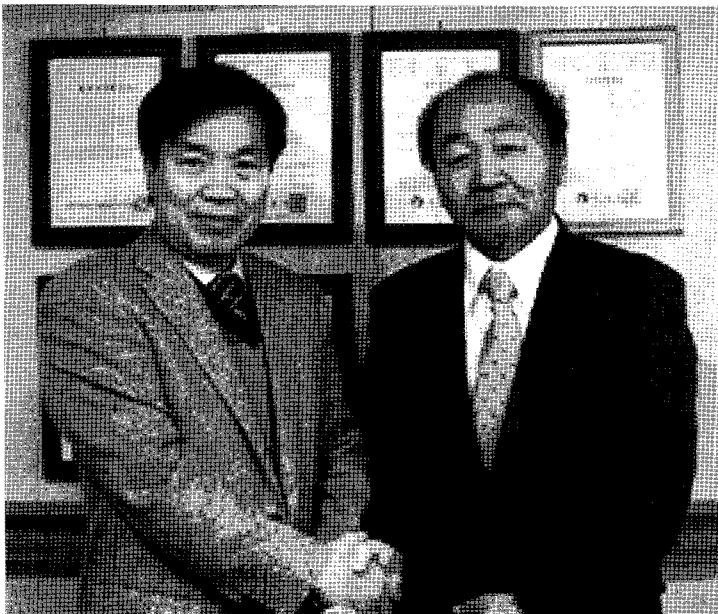
새해 벽두부터 강추위를 겪으면서 올해 날씨가 보통은 아닐 거라는 예측을 하였더니 봄은 왔으나 폭설과 이상 저온현상이 지속되면서 전국 과수농가의 피해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졌다. 얼어붙은 봄 날씨는 제주도의 양파에서 전북도의 복분자, 경기도 복숭아까지 참담하게 무너뜨렸다. 전북 복분자의 경우 폭설과 일조량 부족으로 재배면적의 80% 이상이 피해를 입어 밭을 갈아엎은 농민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전라북도는 피해금액을 400억 원대로 추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대표적인 원예과일 주산지인 경북도의 경우도 과실 재배면적의 50% 이상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대표적인 하우스 작물인 수박, 데론, 참외 등은 공기 중의 수분이 많으면 개화율이 떨어지는데, 연일 비가 왔을 뿐 아니라 냉해까지 겹쳐 상당한 피해가 불

가피하다는 평가다.

실제로 참외 주산지인 경북 성주의 경우 전체면적의 68%에서 피해가 발생하였고, 골판지포장조합과 체결한 계약물량 이외 추가발주는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밖에도 복숭아, 자두, 배의 경우 개화기 일조량과 온화한 기온이 매우 중요한데 최저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경우가 빈발하여 경북 경산, 영천, 의성, 상주지역의 동해피해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골판지포장재 수요에 있어서도 상당 수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일본의 '日刊板紙 단보루 신문', 한국의 (주)제미스코 골판지 원단 자동정렬 장치에 대하여 1면 머릿기사로 상세하게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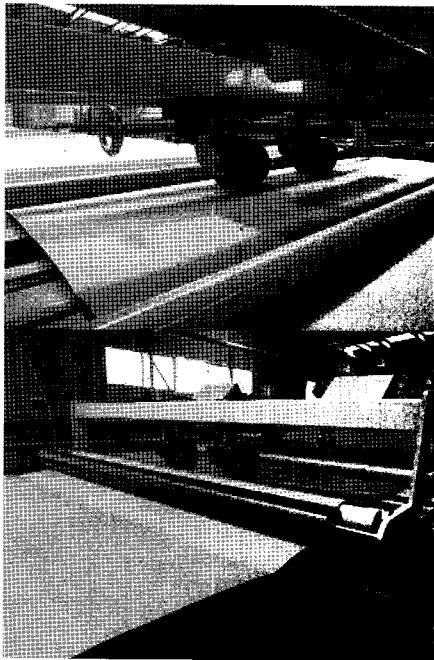


국내 골판지포장기계제조업체인 (주)제미스코는 골판지포장관련 기계를 일본에 납품하기로 다이와크리에이트社와 제휴를 맺어 수출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주)제미스코사는 엔지니어출신인 이윤백 사장이 2006년 8월에 설립한 회사로 브릿지가이드 시스템, 스플라이서 등 코루게이터 관련 기기를 주력 품목으로 생산하고 있다. 금번 일본 다이와크리에이트社와 제휴를 맺은 제품은 브릿지가이드 · 텐션브레이크 시스템인 'WACS(웍스)'로 한국에서는 특허 취득하였고, 일본에서

는 특허출원 중에 있다. 이번 제휴는 한국의 기술력을 일본에서 인정받았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골판지포장기업의 경쟁력을 한 차원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현재 국내 14대, 대만 2대, 일본 1대 등을 설치 완료하여 가동 중에 있다고 일본 제지 · 단보루신문에서 전하고 있다.

'WACS'는 브릿지 위에 설치하여 프리히터 앞에서 레이저센서에 의해 인입되는 편면원단의 폭, 중심선 및 양측단의 위치를 감지, 데이터를 받아서 두축를 방식의 가이드롤이 편면원단을 최적의 위치로 조정하여 접합시 귀맞춤 불량과 장력불량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한다. 레이저센서는 독일의 SICK사 제품을 적용하였고,



데이터 전송은 TCP/IP방식으로 '경쟁업체와 비교하면 7~8배의 고속으로 처리가 가능' 하다고 한다((주)제미스코社). 두축를 방식의 가이드롤은 2개의 롤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배치되어 동일한 동작으로 가이드를 하고, 한축를 방식과 비교해 원단에 가해지는 압력을 분산할 수 있어 미끄러지는 현상을 방지한다. 고속운전에 서도 소재에 관계없이 원단에 자국을 내지 않고 최적의 위치 조정 이 가능하다. 롤을 연결하는 휠의 높이도 지중에 따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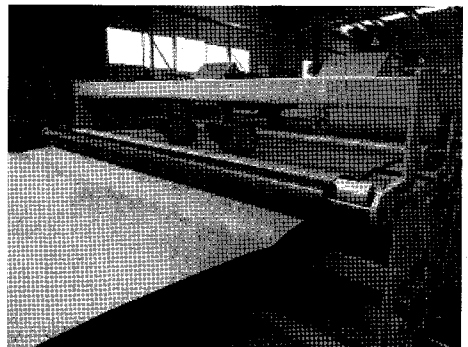
텐션브레이크는 에어브레이크 4조페드, 강화알루미늄 롤을 사용해서 저급지에도 높은 대응력을 가진다. 웹 인입용 기어모터와 축방향의 밸런스를 기본 장치이다. 컨트롤 디스플레이는 상하단의 지폭과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 위치를 크게 표시한다. 지폭변경 시에는 중심선을 변경할 수 있고, 골교체 시의 장력변경 기능을 탑재한다. 이로 인해 분당 400m의 고속 운전 시에도  $\pm 2\text{mm}$ 범위의 조정 정확도를 실현하는 것과 동시에 통상적으로 지폭변경 시에는

생산속도를 늦춰서 대응해야 하지만, 속도를 유지한 채로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종래의 시스템에서 적용한 예가 많은 카메라방식과 비교해서 원단의 와프나 공장 내의 채광, 증기의 영향을 적게 받아 정확한 감지를 할 수 있다. 지폭 변경과 골교체 시에도 생산속도를 늦출 필요가 없이 대응할 수 있어 다품종 소로 트가 많은 시장에 적합하다.

(주)제미스코社는 현재 골판지 제조업체인 신대양판지 등 국내 14개사에서 설치를 완료하여 가동 중에 있으며, 3개사는 현재 설치 중에 있다. 작년 9월에 '왁스'를 도입한 A공장관계자 말에 의하면 '6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생산속도가 평균 분당 5미터 증가, 불량삭감 등에 의해 원지사용량이 0.5% 감소 등 생산효율화에 기여한다'고 전하고 있다.

여타 다른 공장에서도 도입이래, 순조롭게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어서 신대양그룹에서는 4월 이후에도 2개의 신규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주)제미스코의 'WACS'에 대한 성능을 인정받아 2010. 4월 중순경에 오카지시교 등 3개사가 한국을 방문하였고 다가오는 6월초에는 히노데시키키(랭고계열사) 등 일본 골판지기업체가 또다시 한국을 방문하여 설치 운용 중인 공장 등을 방문할 계획에 있다.



## 화성포장, 권용건 대표이사 취임

대구경북지역 전문골판지포장기업인 화성포장산업(주)이 삼성포장의 권용건 전무이사를 새 대표이사로 맞이하였다. 화성포장에 따르면, 지난 3월 5일자로 취임한 권대표이사 체제가 갖춰지는 대로 영업력을 보다 강화하여 농산물상자 생산 선두기업으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성포장산업은 골판지상자 생산 전량을 농산물포장용도로만 생산해온 상자 브랜드를 확보한 명망있는 골판지포장기업이다.



### 대표이사 취임

화성포장산업(주)

- 권용건 대표이사

### 조합원사 승진인사

대영포장(주) 3월1일

- 황성열 이사 → 상무

신안포장산업(주) 4월1일

- 윤영의 이사 → 상무

(주)광진포장 4월1일

- 박순희 부장 → 이사

(주)삼보판지 1월1일

- 신용균 차장 → 부장

신안포장산업(주) 4월1일

- 김진술 차장 → 부장
- 신훈철 차장 → 부장
- 김형곤 차장 → 부장
- 민정두 차장 → 부장
- 최인규 차장 → 부장